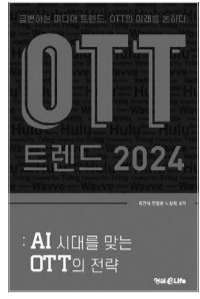


“OTT의 미래는 TV의 미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트렌드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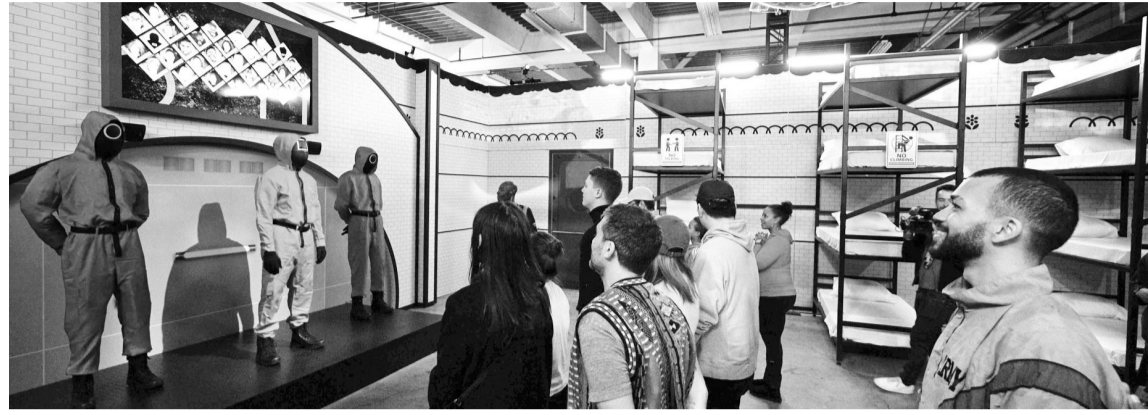
유건식 외 지음



바야흐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기존에 지상파TV, 케이블TV, 위성TV로 구분하던 TV 시청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지상파나 케이블TV 시청 시간이 줄고 대신 스트리밍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합 정보분석 기업인 닐슨의 시청 점유율 조사(2023년 8월)에 따르면 스트리밍 1일 스마트TV 38.2%, 케이블TV 30.2%, 지상파 20.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연출 황동혁)의 경우 전 세계에서 1억4200만 명이 OTT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했다. 2019년 등장한 OTT가 4년여 만에 전통적인 국내외 미디어 시장을 온통 뒤흔들고 있다. ‘OTT 저널리즘’까지 등장했다. 미래에 글로벌 OTT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OTT트렌드 2024’는 급변하는 OTT 시장의 현황과 전망, 대책을 보여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유건식 KBS 전 공영미디어연구소장과 한정훈 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 전문 뉴스 미디어(웹)&스튜디오 디렉터 미디어랩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함께 저술했다. 1년 전에 저자들은 ‘영상 콘텐츠 시장이 OTT 플랫폼이 주도하는 생태계로 전환된다’고 전망하며 ‘OTT트렌드 2023’을 낸 바 있다.

‘AI 시대를 맞는 OTT의 전략’이라는 부제를 붙인 신간은 ▲2023 OTT 전망리뷰 ▲2023 OTT 10대 이슈 ▲2024 OTT 전망 ▲OTT 현황 ▲국내 OTT 이용 행태 등으로 나눠 세밀하게 살핀다. 부록으로 넷플릭스와 티빙, 쿠팡플레이 등 6개 사에서 제작한 ‘국내 OTT 오리지널’을 표로 정리해 수록했다



미국 LA에서 열린 넷플릭스 직접 대화형 경쟁채택 ‘오징어 게임: 더 트리아일’에 참여한 관람객들. /연합뉴스

저자는 ‘2023 OTT 전망 리뷰’에서 “2023년 글로벌 OTT 시장은 예측한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3년은 전략 수정에 따른 슬럼프의 시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훌루 등 주요 메이저 OTT들은 2024년을 수익달성의 원년으로 선언했다”고 밝힌다.

기자 입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미국 지역방송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광고 보는 대신 콘텐츠(방송)를 무료로 보는 스트리밍 TV’(FAST) 채널을 보유하며 OTT의 도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변신하고 있다.

저자들은 2023년 OTT 트렌드를 분석하며 새해 글로벌 OTT 시장을 ‘풍요속 빈곤’과 ‘붕괴야 산다’라는 두 문장으로 압축한다. 스마트TV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점유율이 40%에 육박하지만 스트리밍 시장의 수익성은 적자 일색이다. 2024년에는 ‘OTT 번들링’(여러 OTT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마케팅 기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으로는 하드번들(스트리밍 앱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통합하는 것)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은 소프트 번들(스트리

밍을 통합하는 대신 2개 이상 구독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에서 하드 번들로 진화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다”고 전망한다.

‘생성AI와 OTT’ 또한 저자들의 주 관심사다. 저자들은 “2024년 인공지능(AI)과 스트리밍이 만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한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AI를 탑재하게 되면 콘텐츠 검색이 손쉬워지고, 검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독자들이 스트리밍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 역시 확장되는 OTT, AI와 연관돼 있다.

저자들은 국내 OTT 해외 진출전략을 모색하고 OTT 정책을 진단하며 국내 OT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한다. “국내 OTT 진흥을 포함해서 OTT 법제화 등 OTT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2024년에도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OTT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진흥방안 마련과 더불어 OTT의 미디어적 속성을 합리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형설e Life·2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운 책

▲안녕, 지금 이 순간=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번아웃’ 속에서 리셋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린 9편의 단편 소설 집. 코로나 시대를 소설화한 ‘질병보고2-코로나 레거시’, 지방 소도시 화재조사관의 꿈과 현실을 그린 ‘그림 속의 화재’를 비롯해 ‘안녕, 지금이순간’, ‘승마교본’, ‘단지 그는 피곤했을 뿐이에요’ 등을 볼 수 있다. 작품들은 21세기 인간성과 문명 발전, 세계의 맹점 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트라우마에 잠식당한 현대인들에게 문학적 ‘출구’를 제시한다.

〈교유서가·1만5000원〉



▲숨비기 그늘=5·18 민중항쟁, 제주 4·3인민항쟁 등 굵직한 국가폭력을 이야기 하면서 그 희생 영령들을 위로한다. 작가는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받았던 경험을 계기로 참상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시화했다. 이외 4·16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대참사 등 비참한 현상이나 무도한 정치세계 등을 가감 없이 포착했다. 단순 묘사를 넘어서는 자기해방의 목소리를 모색하고, 역사적 참극을 치유하는 목소리를 시작으로 발한다.

〈살창시선·1만 원〉

다. 인플레이션, 비트코인, 우러전쟁을 비롯해 스티그마 등 기본적인 이론을 알려준다. 전작 ‘부동산 스티디’ 칼럼 중 화제가 됐던 글도 볼 수 있다.

〈페이지2북스·1만8000원〉

▲당신은 설명서도 읽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더는 노동이 부의 축적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모순점을 파헤친다. 거시경제를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역설하면서, 세계 경제상황을 보는 안목까지 길러준

▲일하다 아픈 여자들=여성의 산업재해는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세우고 이를 확인한다. 19명의 노동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통계자료, 객관적 수치, 생생한 이야기를 채워준다. 산재 제도가 갖고 있는 불평등과 산재 요양 시의 어려움, 소외받는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대안으로 ‘표준이 아닌 모든 몸’이라는 제언을 이어간다.

〈빨간소금·1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선생님, 난민은 왜 생기나요?=우러전쟁을 비롯해 이팔전쟁 등으로 발발한 수많은 난민 문제를 주목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은 물론이며 최근 쟁점이 되는 ‘기후난민’ 문제를 다루면서, 난민 인권이 중요한 이유를 역설한다. 난민들이 피난가서 겪는 ‘비호국’ 문제와 튀르키예-시리아 국경 사이 설치된 콘크리트벽 문제 등 시의적인 이슈들을 알려준다.

〈철수와영희·1만3000원〉

▲6교시 인성영역=미래사회의 한국, 대학입시 제도는 21세기 초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새롭게 신설돼 6교시에 공부해야 하는 ‘인성 영역’ 시험은 ‘어른답지 않은 어른’을 찾아내 추방한다. 인격적이고 성숙한 이만 지구에 남아 살아가는 세상이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인지 반문하며 서연, 동하, 정훈, 민수, 예원의 사연을 하나씩 꺼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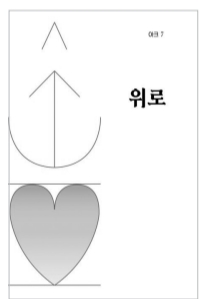
〈스피리투스·1만5800원〉

▲윙카=로얄드 달이 쓴 ‘찰리랑 초콜릿 공장’에 출연했던 윙카가 아동 소설로 돌아왔다. 초콜릿 공장장인 윙카는 신기한 과자들을 만들어 낸다. 이 공장이 어

머리로 하는 위로 아닌 자신만의 진정한 위로를 이야기하다

아크 7: 위로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휴먼, 믿음, 자연, 현대, 소통, 기쁨.

지난 2020년 부산에서 창간된 후 매년 두 차례씩 발행되는 인문 무크지 ‘아크’가 다뤄온 주제다. 처음 잡지 창간호를 받아보고 놀랐던 것은 책을 만든 주체가 건축사사무소라는 점이였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개설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인문학 강좌 등을 지속해왔다. 올해도 ‘도시의 삶과 죽음, 존엄에 대하여’, ‘21세기 동시대 미술’, ‘오! 부산’,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인문학의 방주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담아 창간한 ‘아크’는 매번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철학, 역사, 문학을

기반으로 예술, 공간, 도시, 건축, 미디어,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실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환기해보는 것은 새로운 인문적 상상력을 소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1월 발간된 제7호의 주제는 ‘위로’다. “양극화와 소외, 전쟁과 재난 등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 아래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위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 함부로 남용되거나 그 뜻이 퇴색해버린 빛바랜 위어가 아닌 진정한 위로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해 보려” 마련한 주제다.

집필에 참여한 19명의 필자는 각각의 경험을 녹여낸 자신만의 시선으로 ‘위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철학자 김중기의 ‘비극, 카타르시스, 공동체, 그리고 위로’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를 통해 위로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살피고 마그리트의 그림, 함민복의

시를 보여주며 나와 타자를 위로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신과 의사 권명환의 ‘함께 외로운 우리 시대의 위로’는 상대의 고유한 고통과 슬픔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위로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위로가 오남용되고 있는 요즘, 오히려 ‘우호적인 무관심’을 떠올려볼 것을 제안한다.

류영진의 ‘어떤 위로로 하시겠습니까? 일본 메이드 카페 관찰기’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중 하나로 알려진 한국에도 등장해 화제가 된 ‘메이드 카페’를 통해 위로가 존재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이상철의 ‘고독한 사람 고흐,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다’, 만화와 웹툰이 등장하는 문종필의 ‘위로를 받는 세 가지 방법’, 엄상준의 ‘클래식 음악은 위로인가?’, 손택수의 ‘나를 위로하는 사물과 음식과 시’ 등이다.

〈호밀밭·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m³/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당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1997 태원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질백만불팀, 수질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정량성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지표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향유
태원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